

제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

**'Post-2020 신(新)기후 체제의 에너지, 원자력' 주제
훈·포장·표창 시상, 원자력포럼 개최, 공동 선언문 채택**

제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가 12월 22일~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 행사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 노력에 발맞춰 'Post-2020 신(新)기후 체제의 에너지,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 첫 날인 22일에는 원자력포럼이 열려 국내 원전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전(全)주기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신(新)기후체제 하에서의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관련 전문가 9명이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원자력포럼을 주관한 민계홍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COP21에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이 타결돼 세계 각국이 기온상승 제한과 INDC(국가별 자발적 기여방안)을 통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 제출과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에서 저탄소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의 '원전 전(全)주기 관리체계 구축' 세션에서는 정병진 경희대 교수의 '원전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발표를 시작으로 황주호 경희대 교수("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김학노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미래형 원자력시스템 개발 추진 전략'), 독일 TUV-SUD J. Shang 부사장('원전 제염 및 해체산업 기반구축')이 차례로 발표했다.

오후의 '신기후 체제 하에서의 원자력 역할' 세션에서는 온기운 승실대 교수('온실가스 감축과 한국의 전략'), 마크 부페즈(Marc Butez) 주한 프랑스대사관 원자력에너지 참사관('프랑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위한 에너지 변화와 원자력의 역할'), 창빙(Chang Bing) 중국핵능행업협회 국제협력실장('신기후 체제와 중국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유진 배(Eugene Bae) 주한 미국대사관 에너지과학기술 참사관('신기후 체제와 미국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무라카미 도모코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그룹 연구책임자('신기후 체제와 일본에서의 원자력의 역할')가 발표를 했다.

이날 저녁에는 원자력계 산·학·연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계 송년만찬이 열려 서로 한해의 노고를 위로하고 신년의 다짐을 나누었다. 한편 송년만찬 시작에 앞서 올해의 원자력계 주요 뉴스가 사진 영상과 함께 발표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행사 둘째 날인 23일 기념 행사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해 원자력 관련 기관 및 국내외 산학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날은 2009년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더 큰 발전을 위한 뜻에서 마련된 법정 기념일이다."고 말하고 "원자력계 모두가 힘을 모아 원전 건설과 운영, 해체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2016년에는 글로벌 원전 리더십을 발휘하여 수출도 달성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12.23)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이 치사를 하고 있다.(12.23)



기념행사 참석 주요 인사(12.23)



동탑산업훈장을 받고 있는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12.23)



원자력포럼 주요 참석자(12.22)



원자력포럼 '신기후체제하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세션(12.22)



승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12.22)



원자력계 승년만찬(12.22)

문재도 차관은 치사를 통해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원전 해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준공,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제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원자력 전(全) 주기에 있어 소중한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원자력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86년 부지 선정을 시작한 이래 30여년만의 중·저준위 방폐장 준공과 방폐물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총 20점의 정부포상(국모총리표창 이상)과 산업부장관 표창 69명, 미래부장관 표창 46명 등 총 135명이 훈·포장 및 표창을 받았다.

특히 이날 기념행사에서 원자력계 산학연은 공동으로 기후 변화라는 전 세계적 과제를 해결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안전문화 혁신, 국민소통 확대 등을 통해 원자력이 창조경제와 미래 성장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주재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 두중 등 대기업, 오르비텍, 우진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 등 30여개 업체와 학계, 연구계 등이 참여하는 '뉴텍 2030' 원자력계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원전 안전성 혁신, 수출 경쟁력 제고, 원전 사후 관리 강화,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원전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제2차 원전기술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원자력의 날'은 UAE 원전 수출('09.12.27)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법정기념일 : 매년 12월 27일)되었으며, 산업부와 미래부가 격년으로 행사 및 포상을 주관한다(금년은 산업부 주관). 올해는 법정기념일(12.27)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여 기념행사 일정 조정하였으며, 그간 포상위주 기념행사만 시행했으나 금년은 포럼(12.22), 송년만찬(12.22), 업계 간담회(12.23) 등 부대행사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제5회 「원자력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소 속	직급(직위)	성명(한자)	포상훈격
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인(李鍾仁)	동탑산업훈장
2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처장	전휘수(田徽秀)	석탑산업훈장
3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력본부장	조직래(趙直來)	산업포장
4 한국수력원자력(주)	감찰부장	이한청(李漢昌)	산업포장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검사단장	김봉현(金奉炫)	산업포장
6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장	윤지섭(尹智燮)	산업포장
7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주현(朴周憲)	대통령표창
8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전운영팀장	전수철(田秀喆)	대통령표창
9 한국수력원자력(주)	홍보실장	백훈(白勳)	대통령표창
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운영분석실장	김민철(金玟職)	대통령표창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책부장	하종태(河鍾泰)	대통령표창
12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원진(趙元賾)	대통령표창

소 속	직급(직위)	성명(한자)	포상훈격
13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	이영주(李英柱)	국무총리표창
14 한전원자력연료(주)	경수로연료처장	권기준(權奇準)	국무총리표창
15 UAE원자력공사	한국지사장	모하메드 알 카두리 (Mohamed AlKhadhouri)	국무총리표창
16 경상북도 영덕군	지방시설주사	박진형(朴珍亨)	국무총리표창
1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PD	엄학기(廉學基)	국무총리표창
1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대책단장	이세열(李世烈)	국무총리표창
19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선임연구원	이영욱(李盈郁)	국무총리표창
20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정식(任貞植)	국무총리표창

제5회 「원자력의 날」 공동 선언문

우리 원자력 산·학·연 모두는 '제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맞이하여 원자력이 창조경제·미래성장에 기여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저탄소 경제기반 구축에 실질적 기여

하나, 우리는 신기후체제 도래에 대비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저탄소 경제기반 구축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 신기술 개발 선도로 지속적 성장 동력 창출

하나, 우리는 원자력 기술혁신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한국형 해외 원전 수출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 안전 최우선으로 국민 안심 제고

하나, 우리는 원자력이 안전을 넘어 국민 안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 원자력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등 안전문화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 국민 소통 확대로 원자력 이용 신뢰 증진

하나, 우리는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상생협력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2. 23

원자력 산·학·연 일동